

“산-절-사람 하나될 때 미륵세상”



속리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3 ←

덕유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백두대간의 산경은 삼도봉, 황악산, 추풍령을 지나 속리산으로 이어진다. 속리산은 충북의 보은군과 괴산군 경계의 상주시를 가리며 우뚝 솟은 절경이다. 최고봉인 천황봉(1068)을 중심으로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 관음봉, 묘봉, 수정봉 등 8개의 봉(峯)과 문장대(1033) 입석대, 경업대, 배석대, 학소대, 신선대, 봉황대, 산호대 등 8개의 대(臺)로 이뤄진 속리산은 울음처럼 울고 고귀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명산이다.



문장대에서 바라본 속리산 산맥. 우측 봉우리가 관음봉이고 좌측에 솟은 봉우리는 묘봉이다. 산맥은 추풍령, 황악산을 걸쳐 덕유산으로 흐르며 백두대간을 이룬다.

속리산의 고승들



○의신조사

법이 항상 머문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그곳에 가면 법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와 영심대사를 비롯 조선시대의 심미, 수미, 학열, 화조, 일휴 선사를 거쳐 근대에 입적하신 금오스님까지.

법주사와 인연을 맺은 최초의 고승은 창건설화에 보이는 의신조사(義信祖師). 조사는 인도유학을 통해 불경을 수입했고, 속리산에 법주사를 창건했다.

법주사가 대장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진표율사(眞表律師)와 그 제자 영심스님에 대한 불경의 보급이 미륵세상의 중심도량으로 삼아 발전시키

신라 의신조사 553년 개산 진표율사 정찰법회 개설 심미·수미대사 중흥 불사

면서부터. 진표율사는 열렬한 미륵세상의 신봉자로 미륵불의 도래를 위한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다. 참법(眞法)은 매우 독특하고 혹독해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몸을 내던지는 수행을 거듭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 제자 영심스님에 대한 행적은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할 뿐 출생연대나 출가, 입적시기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본래부터 속리산에 머물렀고 진표율사에 계 법을 전수받은 후 속리산에 머무르며 처음으로 정찰법회를 연 것으로 보아 법주사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주사는 미륵세상의 근본도량이자 참회의를 집행하는 본산으로서의 사명성을 지니게 됐다.

조선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속리산의 불법이 끊이지 않고 이어온 것은 심미(信美)와 수미(守美)대사의 역할이 컸다. 심미와 수미대사는 세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찰중수, 불경간행 등 중흥불사를 도맡으며 불교중흥에 힘썼다.

근대에 이르러 속리산에 주석했던 고승은 한국 정통 선택을 이룬 금오선사(金烏禪師). 보월선사의 법계를 이은 스님은 말년에 법주사에서 남자를 제법해 당대의 법사가 되어 나왔다. 또 월산스님을 비롯 월남, 법행, 월주, 월만 등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해 법맥을 잇고 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 사람은 도를 멀리하려 하고 산은 세속을 여의지 않는다 세속이 산을 여의려 하니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봉우리 거의 보살명호

신라 헌강왕 12년(886) 속리산 묘덕암을 찾은 고운 최치원이 읊은 노래다.

산과 사람 그리고 도, 이 세가지가 서로 멀리 한수북 세상은 삭막해 진다. 그러나 이 셋이 분별없이 하나로 모아질때 세상은 좋아진다. 인간의 세상과 도의 자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읊은 최치원의 탄식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5월의 신록이 나날이 그 푸르름을 더해가는 속리산을 찾는 사람은 잠시나마 경제대란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속리산의 중풍은 세속의 일들을 떠난 마음으로 산을 즐기는 참맛을 주기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기 때문이다.

속리산 전체는 하나의 도량이다. 여덟개의 봉우리 이름 대부분이 보살들의 명호란 점에서 그렇고 법주사를 중심으로한 미륵세상의 면면한 계승이 속리산을 하나의 도량으로 만들어 놓



90년 전인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절인지는 알수 없지만 속리산의 대표적 기암 법주사는 의신스님에 의해 개산되어 진표율사와 그의 제자 영심스님 등에 의해 흥성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법주사는 산내 암자를 제외하더라도 그 경내에 3점의 국보(쌍사자석등 5호, 팔상전 55호, 석연지 64호)와 6점의 보물(사천왕석등 15호, 마애여래좌상 216호, 대웅전 915호, 일동보전 916호, 신법천문도병풍 848호, 괘불탱 1259호), 9점의 유형문화재(회경보살상 등)를 품고 있다. 1990년 전안된 웅장한 청동미륵대불(25m)도 법주사를 상징하는 '미륵의 문화재'다. 법주사 일원은 사적 및 명승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명한 정이품송과 망개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산내 암자 중 가장 규모가 컸다는 북천암 좌측에는 조선 전기의 고승 수암화상(심미대사)과 학조대사의 부도탑이 엇비슷한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다. 높직한 8각의 받침돌위에 기단부의 하대, 중대, 상대석이 놓여 있으며 받침돌이 없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가운데 탑신은 원형이다. 수암화상의 부도는 1480년에 학조대사의 부도는 1514년에 세워졌음이 희미한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공민왕 친필현판 전해

또 북천암에는 공민왕의 친필을 각한 '무량수'란 현판이 보관되어 있어 속리산에 왕들의 발길이 미쳤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때 세조는 북천암에서 자신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수많은 신하를 죽이고 조카를 폐위해 영월로 유배보낸데 대한 참회를 했다. 세조가 북천암 계곡의 목욕소에 목욕을 하고 종기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세조가 지나가려 하자 연(鰲)이 걸리지 않도록 나무기둥을 치켜 올려 정이품의 직위를 받았다는 정이품송 이야기도 속리산과 그 품인의 도량들이 역사로써 대변한다. 중사자암은 선조의 원왕이었다. 선조는 중사자암을 유달리 좋아 했으며 그 아래에 원당을 짓기도 했다. 선조가 1758년에 하사한 친필 병풍은 현재 법주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법주사쪽의 속리산은 불교유적이 풍성하지만 그 반대편인 상주쪽은 그렇지 못하다. 지형이 험한 탓이다. 그런 가운데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장각동)의 칠층석탑(보물 제683호)은 균형이 잘 잡힌 빼어난 법식을 자랑하고 있다. 고려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7층석탑.



북천암에 보관된 공민왕 친필.

은 장각동이 장각사의 옛터임을 말해주는 일러주고 있다. 장각동이란 이 지역이 우복동의 쇠뿔에 해당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복동이란 소의 뿔속 형상을 한 사람살기 좋은 승지를 말하는 것인데 화북면의 7개 동리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동네가 우복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속리축제 승속 한마음

법주사를 들어가는 오리솔은 격조찬 산길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절 앞에서 갈라지는 산길을 따라 오르는 길은 문장대와 천황봉으로 이어지는데 어느길을 택하는 중간에 암자를 만나 쉬면서 부처님 도량의 푸근함을 맛볼 수 있다.

세심정을 조금 지난 곳에서 길은 돌로 깔리진다. 좌측은 북천암과 중사자암을 거쳐 문장대로 오르는 길이고 우측은 상현암 상고암 경업대 입석대를 거쳐 신선대로 오르는 길과 은곡동 학소대를 거쳐 천황봉으로 오르는 길

이 이어진다. 어느 길을 택하든 속리산의 비경은 끝이 없다.

속리산은 보은군민들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속리산축제는 더욱 풍성했다. 4월 30일부터 부처님 오신날인 5월 3일까지 열린 속리산축제는 시조경향대회나 조각전 사진전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등 세속의 풍물로도 이어졌지만 법주사 입구에서 승속이 함께 어울려 지낸 천황봉산신재는 산과 사람과 도가 하나로 모여 사람의 세상을 평안과 자비로 만들어 주길 기원하는 경건한 의례였다. 무엇보다 속리산의 축제는 법주사에서 대미를 장식했다.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이어 해가 지도록 국악연주의 탐돌이가 펼쳐지는 것이다. 보은농고 학생 2백여명이 재연해 보이는 탐돌이는 절이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초파일에 절을 찾아 풍년을 기원과 나라의 화평을 받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성불과 중생구제의 서원을 다지는 비장한 염원의 의식이다. 탐돌이가 끝나고 해곡에 어름이 내리는 시간 가지각색의 장엄물을 앞세우고 사내리품 한바퀴 도는 제등행진으로 속리산 축제는 막을 내렸다. 속리산 축제는 산과 절과 사람이 하나되는 새로운 서원의 축제였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법이 머무는 땅’ 법주사 이름 따와 군민 초파일 전후 편안기원 재 올려 역대 왕들 발길따라 갖가지 사연

이 있는데 사람에게 어찌 신앙심이 없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냇물 들어 머리 카락을 잘랐다. 율사는 그와 함께 구룡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보고 표식을 남긴후 금강산에 가서 발연수(鉢淵叢)라는 절을 창건했다. 달구지를 탄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진표율사의 무릎 아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곳, 다시말해 세속을 여의고 입산한 곳이란 의미에서 구룡산은 속리산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진표율사와 달구지를 댔던 사람이 표시해둔 길상초가 난 곳에는 이후 영심스님과 응중 불타스님 등에 의해 절이 세워졌다. 그런데 <조선불교통사>는 신라 24대 진흥왕 14년 인도에 유학했던 의신스님이 불경을 한 노새에 싣고 귀국했는데 그 노새가 걸음을 멈추고 울부짖은 곳에 절을 세워 법주사라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재 법주사 좌측의 마애여래상 아래쪽에 새겨진 스님과 노새의 암각화가 이 설화를 입증하고 있다. 법주사와 길상사가 같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속리산축제 중 천황봉 산신제는 법주사 스님들과 군민이 함께 지낸다.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로 피해처진 속리산.

주민들 용화지구 환경권 수호

온천개발 따른 식수원 보호 3년동안 법정투쟁 '승소'

속리산 문장대에서 서북쪽으로 300m 떨어진 용화지구 개발로 인해 식수원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용화지구는 행정상 경북 상주시에 해당되지만 온천개발이 될 경우 그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수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3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온 끝에 3월 30일 '속리산 자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환경지킴이 단체를 결성해 화양동 등 관광지와의 환경훼손 행위와 독산개발 억제, 생태조사, 환경교육장 개설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용성스님 5대 수행

1. 임물 수행하여 심해간진하고
2. 참선수행하여 의단복보하며
3. 간경수행하여 해안통부하고
4. 조력수행하여 입장소멸하며
5. 불사수행하여 복덕을 구족케하라.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통사(0561-748-8815)